

격주로X아마도Lab

n개의 모닥불 - 관람자 심층 인터뷰

<<제11회 아마도애뉴얼날레_목하진행중>> 관람자 ‘새빛’

목차

0. 인터뷰 요청

1부

1. 참여자 소개

2. 과거의 전시 관람 경험

- 1) 이름 모를 전시 이야기
- 2) 관람 당시 삶의 어떤 시점
- 3) 전시를 보던 상황
- 4) 음악 전공에 다시 집중하는 계기
- 5) 전시를 본 뒤에 친구와 고기집으로
- 6) 전시를 본지 2년, 그동안
- 7) 취향, 전쟁 영화-사극-슬픈 사랑
- 8) 관람 경험을 아우르는 이미지 찾기
- 9) 몸에 남은 관람 경험의 이미지 찾기
- 10) 머리 꼭대기가 쪼여지는 느낌

2부

3.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관람

3부

4.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관람 경험

- 1) 궤적과 본 것들
- 2) 정혜정X문아름 <<뗏목 아래 우리>>
- 3) 다른 감각을 엿보기 - 광기쁨X박예린 <<당신의 눈동자에 눌러붙어 스며든다>> 중 <~하는 중>
- 4) 찌릿 뻘뻘 - 다른 감각을 이해할 때 몸의 느낌
- 5) 일상에서 느낀 찌릿 뻘뻘
- 6) 이해함과 이해받음의 느낌
- 7) 양하X최은총 <<부르르>>

5. 마무리

0. 인터뷰 요청

—씨

00:26

우선 여기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저희가 여기 아마도 예술 공간에서 올해 아마도 랩에 저희 격주로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격주로는 원래 관람자 경험 관련한 워크숍이랑 인터뷰 그런 리뷰 토크들을 해오던 팀인데 주로 시각예술 작가들 4명이랑 기획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n개의 모닥불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아마도Lab에서 대화의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관람자들을 찾아나서게 됐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이 관람자 심층 인터뷰예요. 아마도예술 공간에서 열린 전시가 관람자 몸에 남긴 감각과 내러티브를 탐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관람자에게 수용된 경험이 개인의 삶과 관계를 맺으면서 몽타주 그러니까 몽타주라는 건 다른 서로 다른 이미지가 조합돼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그런 몽타주나 아니면 별자리 같은 어떤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새빛 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씨

0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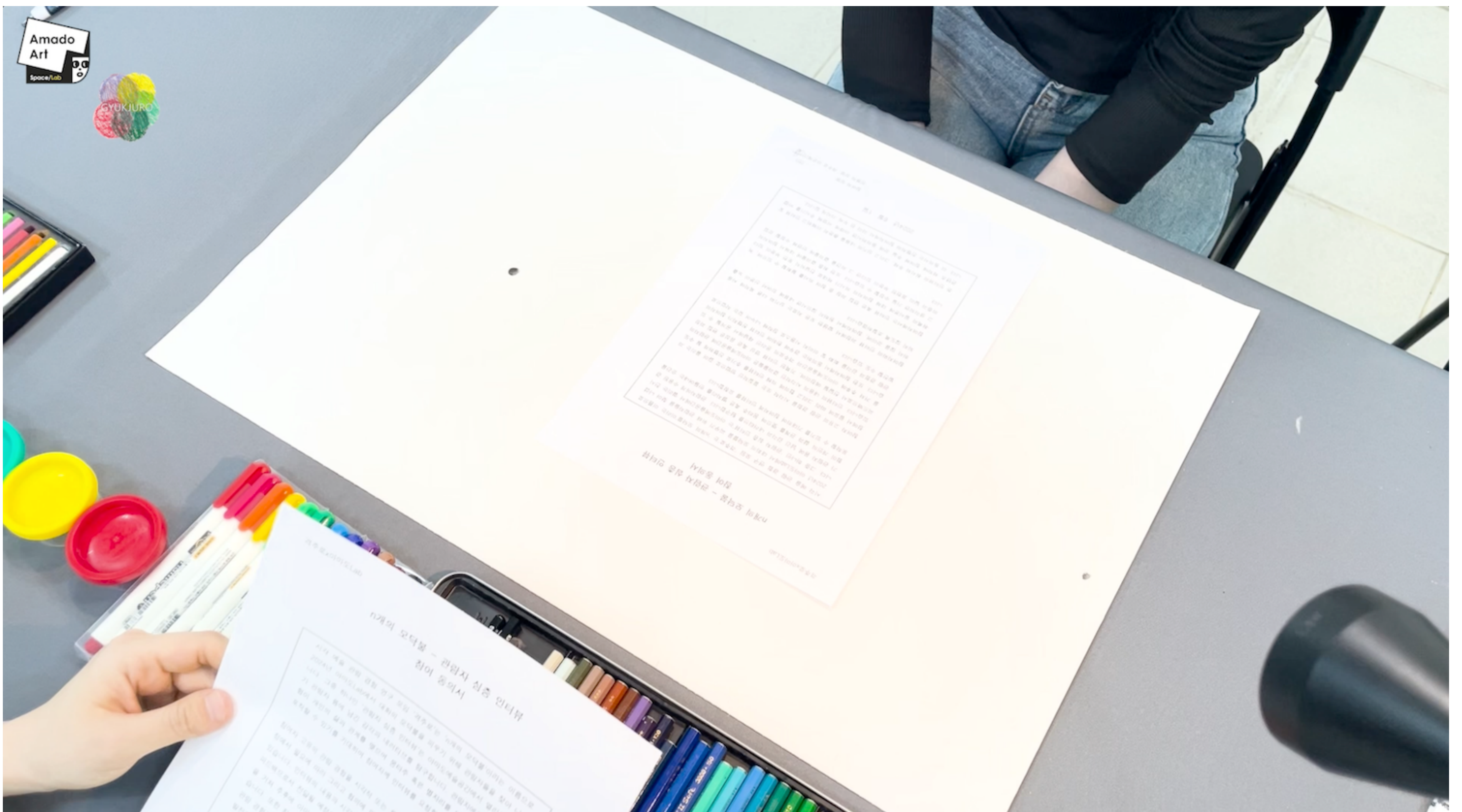
그리고 이게 참여자 고유의 관람 경험을 시각적인 혹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길어 올리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새빛 님과의 협의에 의해서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으시면 얼마든지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과 시각적인 결과물들은 아마도예술 공간의 관람자의 피드백으로서 전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록된 인터뷰 영상이나 음성은 이게 영상으로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만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직 불확실한데요. 그거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아마도 예술 공간과 격주로의 온라인 채널에서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씨

02:35

그리고 또 새빛 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이거는 저의 좀 개인적인 어떤 궁금함이 있어서 부탁드리기도 하는 건데요. 제가 참여자의 관람 경험과 감각을 회화나 이미지 시퀀스로 창작하는데요. 진짜 그 구체적으로 몸 감각을 정확하게 고집어내는, 해상도 높게 그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몇 가지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작품을 실제로 물질적으로

나눠 갖는 그런 작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미에 한번 다시 여쭙볼게요. 그리고 참여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는 위와 같은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자께서 원치 않으시면 내용에 있어서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빛님께서 인터뷰나 편집 과정 중에 얼마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내가 이만큼 이 시간을 썼는데 그런데 난 너무 말할수록 부끄럽다 이러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권리는 있는 얼마든지 다 있으시고요. 또 녹취록의 필사본에 대해서 참여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또 가필 수정하실 수 있고 또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새빛님의 의중과 달리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의견을 결과물에 반영해 수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인터뷰의 취지와 주제 그리고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터뷰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주실 것에 동의해 주시면 아래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부 서명해서 각각 하나씩 나눠 갖겠습니다.



05:59

저희 오늘 한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1부 인터뷰를 할 건데요. 좀 쉬었다가, 위에 전시 아직 안 보셨죠? (새빛: 네.) 그 전시를 자유 관람을 하시고 그다음에 3부로 이 전시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실게요.

1부

1. 참여자 소개

—씨

06:22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새빛 님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인터뷰에서 밝혀도 괜찮을 활동명이나, 실명도 되고 공개되어도 괜찮은 이름을 하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요. 또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 전공을 말씀해 주셔도 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관람자로서의 성향도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부탁드립니다요. 주로 어떤 전시를 보시고 빈도는 어떻게 되시고 그런 것들....

새빛

07:23

저는 일단 음악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름 성만 빼고 해서 신을 빼가지고 새빛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 전공이 음악인데 저는 공연 관람하는 것도 그렇게 큰 취미를 갖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전시회는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1~2년 전에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보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그것도 친구가 보자고 해서 갔는데 보면서 그냥 한 번 쓱 둘러보면서 그냥 이런 걸 담았구나 이런 정도만.

—씨

08:27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하드코어 케밥 워킹에 참여하셨던데요.

새빛

08:35

네 맞아요.

2. 과거의 전시 관람 경험

1) 이름 모를 전시 이야기

—씨

08:36

행사도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전시나 공연은 아니어도 뭔가 행사 같은 것들은 참여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빛: 그것도 이제 처음이었어요. 2주 전)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를 하나 여쭙보고 싶은데 일단 2년 전에 보셨다고 한 그게 하나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꼭 몸을 이동해서 본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본 거 그런 경험도 다 아울러서 정말 어렵풋하게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봤던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기억 하나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때 답변으로 그 전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말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곡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남은 감각이나 그런 기억들을 공유해 보는 자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전시가 혹시 어떤 전시였을까요?

새빛

10:01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외국 작가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것도 이제 그 전시를 가게 된 계기가 수업 관련해가지고 갔던 거였거든요.

예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미술 작품을 보고 그런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유명한 바다? 바다인가, 수영장, 이렇게 있고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떠 있고 수영장에... 약간 그 그림이 유명해서 제가 그걸 알아서 그 전시를 간 거였거든요.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씨

10:54

2년 전. 2년 전... 제가 아는 그 수영장에 사람이 떠 있는 그림 그림인가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었나요? 데이비드 호크니였을까요? 서울시립미술관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에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서울시립에서 전시했던 거는 2019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2년 전인 건 정확하신 거고요?

새빛

11:25

네 언제... 아마 그랬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씨

11:33

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어떤 상황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ㅎㅎ

새빛

11:38

아무튼 그런 거가 있었어서 이제 갔는데 그냥 저한테는 되게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2)관람 당시 삶의 어떤 시점

—씨

11:51

혹시 그 전시를 보던 당시에 새빛 님한테는 전 인생의 통틀어서 어떤 시점이었나요? 어떤 시기였는지.

새빛

12:10

그 전시를 보던 시기가...

—씨

12:12

그거를 한번 직접 이렇게 드로잉하시면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태어난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가 현재



라고 생각했을 때 원하는 도구로 전시를 봤던 시점이랑... 그리고 왜, 사람마다 자기 어떤 시기를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유년 시절에 좀 암흑기였었고 어떤 굴곡이 있었던 것 같고 20대 때는 여전히 굴곡은 있지만 신나는 일들도 많았고 그런 어떤 각자 다른 인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시고요.



그 전시를 봤던 시점으로부터 파생해서



얘기를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빛

13:59

여기가 그 시기라고 하면은 그냥 이 앞에는 빼고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해도 되나요? 한 그림 이쯤이 입학식이었어요.



이제 저는 음악이라는 꿈을 갖고 입학하게 됐지만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게 되고 되게 다 처음 시작은 똑같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뭔가 수업을 듣고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좀 나서는 다른 것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말이 좀 거창한데 꿈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한 이 중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영상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한창 다 관심이 많을 때였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업을 딱 이제 듣고 정말 재밌다. 이게 어찌면 음악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무조건 내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고 뭔가 딱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음악이랑은 좀 다르게 영상은 이게 딱 눈으

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교양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게 그 수업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수업이다 보니까 과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예술 활동도 제가 하니까 이런 거를 내가 업으로 삼는다면 이걸 조금 힘들겠다 했던, 그러니까 되게 제 미래에 대해 방향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그게 마지막 과제쯤이었을 거예요. 그 전시를 보러 갔던 게 그 마지막으로 딱 보러 갔는데, 이렇게 자기가 그냥 본 것을 그대로 그림에 그리고 정말 잘 그리는 예술가였긴 하지만 그렇게 약간 사진처럼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전시회를 보면서 그냥 그 자세한 서사는 모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 집 앞 풍경을 그린 건데 좀 색이나 이런 거를 되게... 저한테는 좀 특이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색깔들을 이렇게 쓰면서 이것을 진짜 예술로 이렇게 해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아 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열심히 하면 나도 좀 잘 할 수가 있겠구나' 딱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잡생각 버리고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때는.

3) 전시를 보던 상황

—씨

18:22

중요한 계기가 되었군요. (새빛: 낙서같이...) 이게 좋아요. 그런 수업의 계기로 그리고 또 그렇게 본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러면 전시를 보던 상황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날의 어떤 날씨 가던 어디서 출발하고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에 대해서 서울에서 있었던 전시인가요?

새빛

19:07

네. 같이 갔던 친구 차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 정확히 어디가 목적지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갈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올 때는 조금 흐렸던 것 같아요.

—씨

19:26

차를 타고 가시면서 기억에 남는 랜드마크 같은 게 보였던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새빛

19:36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신한은행 본점 (—씨: 그게 어디에 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종로인가 그쪽을 지나갔던 것 같거든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어서.

—씨

20:03

아, 광화문도 지났나요? (새빛: 네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그렇게 차 타고 친구분이랑 이동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전시장에 들어가셨을 텐데 혹시 전시장에 사람이 많았나요? 줄 서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새빛

20:24

줄 서서 들어가진 않았는데 안에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씨

20:32

그럼 그때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새빛

20:43

첫 인상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거창한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느끼긴 했어요. 제가 처음 전시를 간 거니까.

—씨

20:59

그러면 그렇게 느끼셨을 때 객관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새빛

21:10

그냥 그 전체적인 풍경...?

—씨

21:14

묘사를 한번 해 주신다면.

새빛

21:16

그냥 제가 좀 놀랐던 건 연령층이 되게 다양했었고, 그리고 그림은 그냥 딱 보면 보였는데 옆에 설명이 엄청 길게 장황하게 돼 있어서 거기서 또 한 번 놀랐고. 그냥 그런 분위기?

—씨

21:48

처음에는. 그러면 그렇게 입장을 해서 그런 인상을 갖고 전시를 좀... 여정을 거치면서 보셨을 텐데 그걸 한번 그 전시 공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강의 도면 같이 그려서 어떤 식의, 무엇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하거나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빛

22:32

뭔가 도면보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쪽 공간에 가면 어떤 색 이쪽 공간에 가면 어떤 색 약간 이런 걸 표현해도 될까요?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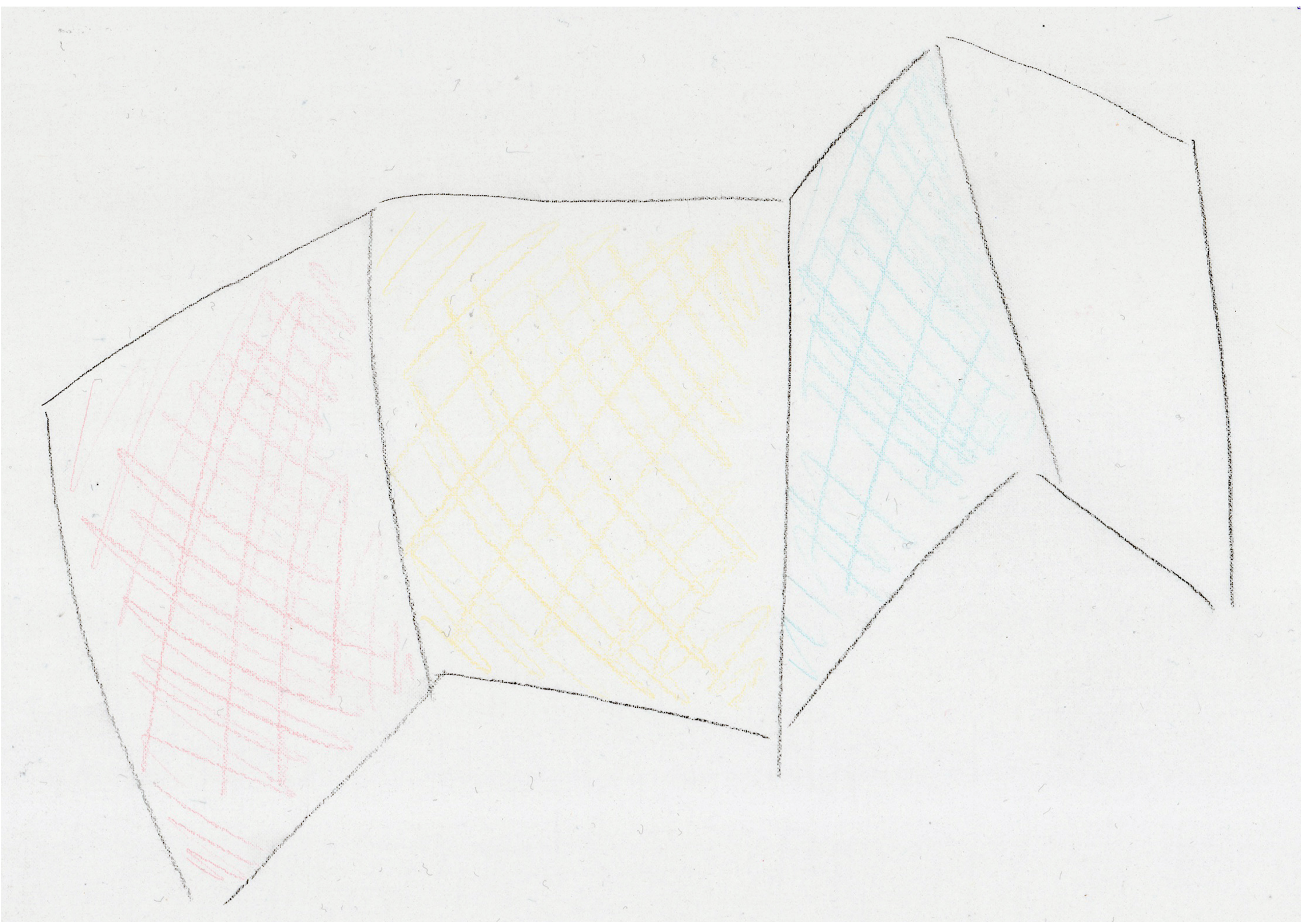
22:45

네. (새빛: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새빛

23:32

만약 이게 하나의 공간들이라고 치면 노랑색 (—씨: 이걸 쓰셔도 돼요.) 그냥 한 가지 테마가, 테마마다 색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도 있었고 어디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새빛

24:35

이런 느낌이고 빛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

—씨

24:48

그러면 보여주신 대로 그 콘셉트에 맞는 색이 벽 색으로 모두 솔리드하게 전면으로 발려져 있고 거기 그 벽에 작품들이 걸려 있는 식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 (새빛: 네.)

새빛

25:07

색깔 되게 다양했어요. 보라색, 초록색도 있고.

—씨

25:09

그러면 그렇게 관람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있으셨나요?

새빛

25:23

음 딱 생각나는 거는, 그거랑 되게 비슷했는데 옛날에 보면 그 컴퓨터 바탕

화면 그림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바탕 화면도 그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시회에 있던 그 사진도 되게 사진 같은데 그림이라고 그래서 되게 막 푸르른 초원에 하늘이 이렇게 새파랗게 있는 그림이었는데 되게 하나하나 그 초원의 풀들을 다 묘사를 해놔서 되게 그냥 '와' 감탄만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4) 음악 전공에 다시 집중하는 계기

—씨

26:37

그러면 그 작품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고민을 하던 시기에 다시 새빛 님의 전공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 이 전시 경험에 큰 이유이기도 할까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빛

27:06

그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작품들이 너무 리얼해서, 그림 같지가 않았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꼭 그 작품이다 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씨

27:23

그러면 제가 아까 기억한 걸로는 그 그림들이 사실 집 앞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풍경인데 그게 어떤 창작을 거쳐서, 어쩌면 그 소재는 그대로 사용하되 작가 특유의 필치나 스트로크이나 그런 화풍을 거치면서 어떤 예술 작품으로 변화하는 그것에 대한 인상을 받으셔서 새빛 님 자신도 자기의 일상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처럼 느끼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요?

새빛

28:18

그거랑 좀 연관돼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똑같은 어떤 사물을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제가 음악을 하니까 그리고 음악이 제 삶이고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은 주제를 놔두고 되게 음악으로 풀어나가기
에는 좀 식상한 그런 주제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사랑 뭐 이런 거 되게
식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나는 좀 다른 어떤 시선
으로 좀 해서 이런 걸 풀어 나가봐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씨

29:29

혹시 어떤, 음악에서 어떤 음악을 전공을 하세요?

새빛

29:35

저는 제가 사실 시작한 거는 그냥 발라드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 중간 Jpop
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조금 제 방식대로 좀 하자고 생
각을 한 게 사극이었어요. 사극 풍의 발라드를 해보자. 뭔가 사랑은 사랑인
데 조금 더 아름답고 아련하게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
다고 느껴서 저도.

—씨

30:21

그럼 작곡을 하시는... 아 나중에 공연이나 발표하실 때 있으면 알려주세요.

새빛

30:31

저 화요일날 12시에 곡이 나와서. (—씨 : 어디 플랫폼인 거예요?)

새빛

30:38

다 웬만한 플랫폼에는 다 멜론이나 유튜브에도 나오고

—씨

30:45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오.

5) 전시를 본 뒤에 친구와 고기집으로

—씨

30:54

그러면 이 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전시를 본 뒤에는 혹시 뭘 하셨나요?

새빛

31:02

아 끝나고 나서, 일단 거기에 있었던 그걸 굿즈라고 하나, 거기 숭에 들어가서 딱 둘러보고 좀 구매를 하고.

—씨

31:24

그러면 그 때 구매한 게 아직도 집에...?

새빛

31:27

네 있어요.

—씨

31:29

혹시 어떤 식으로 다 집에 놓여 있는지...?

새빛

31:34

그 패브릭 포스터인데 제가 집에 조그마하게 방음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에, 문이 조그마하게 창문이 뚫려 있어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씨

31:47

혹시 사진도 있으세요? 그때 전시 때에 찍었거나 아니면 패브릭 굿즈를 집에 걸어놓은 (새빛: 찾으시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긴 2년 전이면 요새는 몇만 장 뒤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굿즈를 사고 나서 그다음에 또 미술관을 아예 벗어나서는 무얼 하셨나요?

새빛

32:25

아예 벗어나서는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서 용인으로 이제 다시 가는 길에 그 친구랑 그렇게 그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것도 수업을 하다 만난 사이여서 전시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되게 신기했다', '사실 나는 전시가 처음이다', '이번이 이랬는데 자기도 처음이었다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다' (등의) 이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학교 생활 얘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고기를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씨

33:19

너무 오래전에 대화긴 하지만, 그때 차에서 대화를 하면서 공감한 어떤 순간들 외에도,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봤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새빛

33:54

그냥 이걸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되게 그림을 보고 '사진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림을 보고 '그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진짜 그냥 사진을 찍은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그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6) 전시를 본지 2년, 그 동안

—씨

34:32

새빛님은 표현의 어떤 사실성 때문에 사진같다고 하셨던거죠. 그러면 그렇게 전시를 하나 보시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전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다시 떠올려진 경험 같은 것이 있을까요?

새빛

35:02

막 그렇게 큰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제가 방음부스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냥 보면서 '이런 전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그냥 또 가보고 싶다' 이렇게 그냥

가끔, 가끔씩 생각이 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씨

35:31

그러면 그 전시 보신 시점 이후로 이후에 한 2년이 흘렀나요? 약간 2년이 흐르면서 이제 음악 작업에 전념하시면서 지내신 건가요? 그 이후로 삶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새빛

35:51

그 이후에는 그냥 뭔가 음악 뿐... 음악을 제 삶으로 생각하고 살긴 했지만 음악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저 꾸미는 걸 좋아해서 그냥 내 외적으로도 아니면 내 성격이나 뭔가 이런 것도 온전히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를 약간 좀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걸 좀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씨: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그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나만의 분위기가 저는 되게 사람들에게 딱 있어서 기억에 남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부끄러운데 저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넌 이런 모습이 좋다'고 했던 것을 그 장점이잖아요. 그런 걸 더 좀 발전시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격이면, 되게 발랄하다고 얘기를 좀 친구들 사이에서는 많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더 밝아져가지고 조금 더 친구들한테 뭔가 힘들 때 도움을 주거나 이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씨

37:51

그때가 그러면 한창 코로나 때, 2년 전, 22년이면. 이제 좀 풀렸을 때였나요? (새빛: 네네 마스크 쓰고) 쓰기는 쓰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거의 시작될 때 대학에 입학하셨던 건가요?

새빛

38:19

제가 코로나 시작됐을 때가 고3 때였어요. 20년도가 고3이었어요.

7) 취향, 전쟁 영화-사극-슬픈 사랑

—씨

38:27

그러면 그 사이에 전시장이 꼭 아니어도 뭔가 다른 종류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소비하셨을 텐데,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그런. 주로 어떤 거를 주로 보세요?

새빛

38:54

제가 막 '어떤 거를 딱 좋아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럼, 저는 영화도 유튜브에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콘텐츠를 즐겨 봐가지고.

—씨

39:29

작업하시는 음악적인 취향과 다른 영화를 보는 취향이 연결이 되나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새빛

39:50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전쟁 영화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태극기 휘날리면 이거 진짜 10번 정도... 저는 왜냐하면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방학이 되면 그냥 그걸 한 편 보고. 그런 영화도 보고. 그리고 전 드라마도 이게 제가 음악 사극으로 딱 정한 이유도, 사극을 엄청 좋아해서 제가. 그런데 그렇게 진짜 역사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되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섞이는 것도 좋아해서. 보보경심려 아세요? 혹시 달의 연인? (—씨: 네, 네.)

새빛

40:42

그것도 제가 매 방학이 되면 정주행을 하거든요. 맨날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서 약간 저는 전쟁도 그렇고 사극도 그렇고 저의... 좀 눈물을 자극할 만한 그런 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씨

41:05

아까 발라드라기보다는 그 사랑에 대한 노래 음악도 사극 같은 통로로 해

보고 싶으시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더 애절함이 강조되기 때문일까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거에 끌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새빛

41:30

일단 그렇게 애절함이 조금 더 잘 드러날 것 같아서 한 건데, 사실은 그 애절함도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고 나면 더... '이게 그냥 두 남녀가 헤어지게 되었어'라고 하는 것보다 '애네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풍경에서 뭐 하고 뭐 하고 막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되었어' 이게 조금 더 이게 마음의 울림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냥 발라드에서는... 조금 표현하기가 점점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표현할 만한 요소들은 되게 많지만 그런 서사를 사용할 서사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사극은 그때 그 시절의 풍경? ... 저는 생각만 해도 이게 감성이 막 자극되거든요.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한복을 입고 머리 따서 놓고 있는 여인들, 벚꽃에 흩날리는 그런 것들 막 생각하면 되게 그 시절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때를 보진 않았지만. ㅎㅎ

—씨

43:19

그런 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유한 사극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미감에 대한 선호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사극과 전쟁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 서사의 규모가 국가적인 규모잖아요. 사극도 사랑 이야기, 어떤 판타지적인 사랑을 담은 사극이어도 왕과 연결 연결되고. 그런데 지금 현대 로맨스 같은 경우는 다 회사원이거나, 높아야 이사, 사장, 회장 이런 건데, 어떤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바운더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계망을 뛰어넘는 사회 구조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확장되는 구조 안에서의 좀 더 큰 서사에 대한 선호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새빛: 네.) 큰 스케일 안에서의 사랑. ㅎㅎㅎ 전시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혹시 그러면 이러한 선호가 이 전시를 보셨을 때 같이 연관되어 작용한 지점이 있었을까요?

—씨

44:55

워낙 다른 걸 다루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면 이런 선호 말고도 그리고 또 전시를 처음 본 세빛 님의 어떤 경우를 차치하고 그게 아닌 세빛 님의 관점

이기 때문에 그 전시를 다르게 봤을 것 같은 지점이 있었을까요?

새빛

45:29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일상에 보기 힘든 색깔을 저는 좀 막 사용을 했다고 한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막 그 작가가 외국인이라서... 제가 그 지역에 가보진 않았지만 진짜 도로의 색깔과 건물의 색깔 그런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되게 제 입장에서는 특이한 색깔들이었어서 저는 그런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딱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좀 남색은 되게 어두운 색깔이고 노란색은 밝은 색깔 이렇게 딱 뭔가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 하나 보면서,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것인데 이런 색깔을 사용을 해서 되게 어두운 걸 표현을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의미를 저는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8) 관람 경험을 아우르는 이미지 찾기

—씨

46:57

그러면 색이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때 그렇다면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시를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 전시의 경험을 크게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서 그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딱 드는 인상이나?

새빛

47:28

그런데 사실은 약간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는 좀 밝은 분위기였거든요. 핑크색 노랑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꽃혀서 산 거였는데 그 패브릭 포스터를. 그거는 되게 바다인데 물이 이렇게 막 푸르지가 않고 되게 어두운 색이었어요. 저는 그걸 그냥 인상 깊게 봤어가지고.

—씨

48:18

그렇다면 그런 분홍색 노란색 이런 밝은 색의 어떤 색의 향연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둡지만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분명한 색 같은 그런... '성격은 다른

데 다채로운 색들의 모음'처럼 그때의 경험이 기억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새빛

48:47

네. 이게 한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는 되게 밝고 그런데 여기는 되게 어둡고.

—씨

48:57

혹시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할 때 그 감각을 말로도 제게 전해주시긴 했지만 한번 여기다가 그려봐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아마 새빛 님한테 그 전시가 남긴 어떤 몸의 감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윗부분에 한번 그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빛

49:41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볼게요.

새빛

50:05

이렇게 나눠서 색깔을... 이게 꽃인데. 이렇게 꽃 그림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또 분홍색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ㅎㅎ... 집이 예쁜 꽃분홍색. 그것도 기억이 나서. 그리고 푸른 하늘에 아까 말했던 (—씨: 바탕화면 같은) 그냥 약간 이런 그림도 있었던 반면에, 아까 말했던 바다 바다인데. 약간 비가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하늘이 잿빛이고. 좀 이렇게 어두운 그림도 있었고. ... 그냥 일상적으로 도로를 완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드론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림도 있었거든요.

...

새빛

52:33

이렇게 생겼었나? 도로가? 아무튼 이런 정말 일상적인 그림도 있었고. '해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이런 그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딱 한 가지 주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9) 몸에 남은 관람 경험의 이미지 찾기

—씨

53:13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그 전시 경험의 전반적인 인상을 얘기해 주셨을 때 어떤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손짓으로 구획을 나누시면서 뭔가 밝은 색깔 어떤 어두운 육중한 깊은 흐린 물 같은 색? 그런... 하지만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어떤 세대의 모호한 감각들로 아마 채워져 있을 것 같아요. 세빛 님한테. 그런데 그걸 다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그때 전시장에서 보셨던 이미지들을 소환해서 이렇게 잘 그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 그림에 '기대서' 그 감각을 보여주시기보단 한번 '몸에 있는 그 느낌대로' 한번 표현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

54:20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했던 관람자용 기록 키트긴 한데, 이걸 쓰시지 않고 이렇게 참고용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새빛 님 몸이 있다면 그 색깔의 느낌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감각을 주는지... 그걸 색면으로 이렇게 그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주실 수도 있으세요.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빛

54:55

(플레이도우를 집으며) 이걸 쓰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느낌은 느끼고 있는 거를. 아닌가? 그냥 그림으로 할게요. ㅎㅎㅎ

—씨

55:18

'뭉게뭉게'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 이 파스텔도 쓰실 수 있어요.

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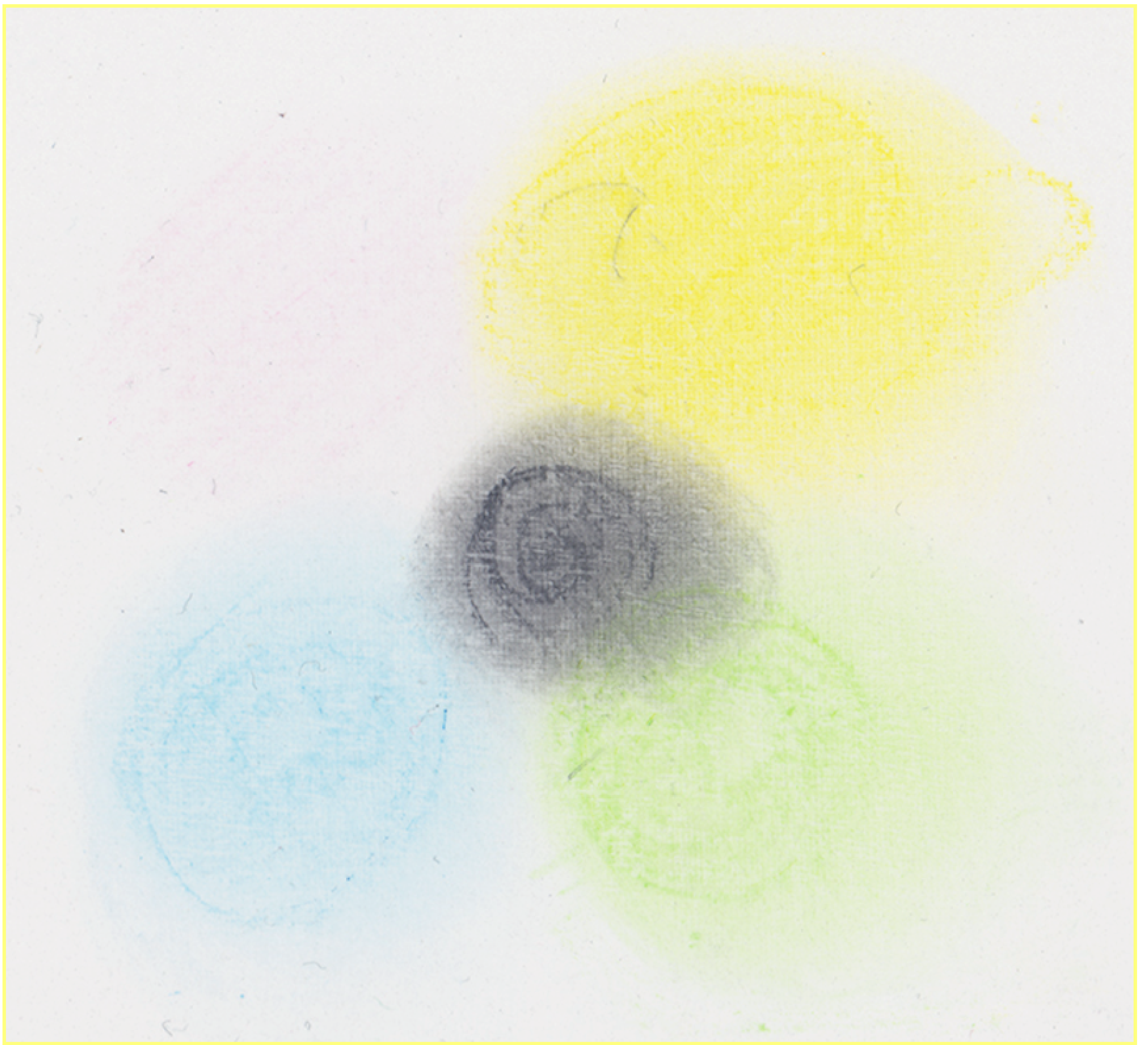
55:56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새빛

56:45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씨

57:16

그러면 이 가운데 어두운 색이 패브릭 포스터의 그림에 해당되는 느낌인 건가요? (새빛: 네.)

새빛

57:26

되게 그런(어두운) 분위기의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동그라미가 조금 작은 걸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지만 딱 한 가운데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작용을 하는 그림이었다?

—씨

57:59

네, 감사합니다.

10) 머리 꼭대기가 쪼여지는 느낌

—씨

58:03

그러면 이게 마음이니까, 마치 그런 사극의 어떤 애절한 그런 스토리나 음악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목울대라고 하나요? 목울대 플러스 이런 데가 조금 자극이 저는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글이 굉장히 약필인데 글을 쓸 때 너무 손목이 시려요. 약간 여기가 좀 힘든 느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심리적인 것이 진짜 어떤 진짜 내 몸의 어딘가를 담당하고 물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한 그런 감각들은 다들 하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런 이런 양상이 혹시 어디에서 느껴지세요?

새빛

58:56

이게 저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저는 머리 꼭대기에서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되게 깊이 감명을 받거나 아니면 알림을 받거나 울림이 있으면 마음으로도 울리는데. 되게 이거는 진짜 내가 내 마음이 온전히 좀 소화하기 힘든 그런 감정도 있고 막 울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머리가 되게 울리더라고요.

—씨

59:52

그러니까 여기(머리)가 실제보다 좀 더 커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울린다는 것이.

새빛

1:00:03

저는 되게 이렇게 압박되는 약간 쪼여지는 그런 느낌? 이게 눈물 참으면 막 나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씨

1:00:17

그럼 그게, 그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감정, 정동 이런 건데. 그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적 경험으로 생각을 느끼시는 거죠? 네, 되게 제가 못 느끼던 감각인 것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쪼여지는 느낌'이라... 혹시 그런데 그런 거를 언제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셨나요?

새빛

1:00:51

사실은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그런 전시를 한 번 더 봤었더라고요. 작년에 강릉이었나? 거기서 되게 유명한... 제주도에도 있고. 여기를, 꼭 이 전시는 가야 한다(고 하는).. 아르떼 뮤지엄인가? 스크린에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연을 표현한 그런 거다 보니까. 거기 중에서 하나 딱 있었던 거는, 약간 폭포가 막 이렇게 싹 내려오고 바닥에 이렇게 일렁일렁 물이 일렁이고 그런 모습이 그냥 파도가 내려오는 건데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소리랑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내가 진짜 실제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가지고.

—씨

1:02:16

그게 이쯤이었나요? 작년? (새빛: 네, 네, 네.)

새빛

1:02:35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씨

1:02:37

그 머리가 쪼여지는, 뭔가 압도되면서 내가 그 순간에 실제로 폭포를 보는 게 아닌데 진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 괴리가 주는 어떤...

새빛

1:03:02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딱 느낀 그게 '내가 이러다 진짜 여기 빠져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씨

1:03:18

그러면 이렇게 뭔가 감당이 안 되는 어떤 미적 경험을 통해서 '머리가 쪼그라드는' 그런 감각을 저는 사실 정 반대로 되게 여기가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순간에 그렇다면 그거를 또 한번 이미지로 한번,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그려주실 수 있나요?

새빛

1:03:50

그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머리에서 느끼는 게. ㅎㅎ 음... 뭔가 내가 어떤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놀라면 입 밖으로도 안 나온다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여기로(머리 꼭대기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 어떻게 하지...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예요.



새빛

1:04:50

이런 느낌? ㅎㅎ

—씨

1:04:55

이게 약간 두개골이고 그 유닛들이 이렇게...

새빛

1:04:57

여기서 ㅎㅎ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번뜩'이고...

2부

3.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관람

관람 전시: <<제11회 아마도애뉴얼날레_목하진행중>>

—씨

1:05:16

이렇게까지가 1부 인터뷰가 될 것 같고요. 말미에 이런 식으로 전시를 보면서 느껴지는 몸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몸을 가지고 이제 2부로 위에 전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시를 보실 때 보통은 친구들이랑 보실 때도 있고, 아마 아르떼도 지인이나 친구들이랑 보셨을텐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느낀 거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혼자 보시게 되니까 보시면서 이걸 모르겠다던가 아니면 궁금한 거 혹은 보다가 퍼뜩 뭔가 마치 영화의 인서트 장면처럼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메모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부

4.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관람 경험

1) 궤적과 본 것들

—씨

1:13:18

그러면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되게 많은 작업을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보셔서 아마 막 뒤죽박죽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차분하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에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다시 그리셔도 되는데 도면을 중심으로 한번 보실게요.

가령 어디서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무엇을 봤고', '그다음에 무엇을 선택했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동선을 한 번 그리시면서 설명을해주세요.

새빛

1:14:17

일단 먼저 들어가서.



새빛

1:14:24

지하부터 들어와서 봤는데 일단 거울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구름을 표현을 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으로... 이게 맞나? 아무튼 안으로 들어갔는데 깊숙이 들어갔는데 약간 그림 몽게몽게 그림도 있고 일단 나무로 약간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구름이 바닥에 있네'(하고)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옆에 딱 보니까 휴대폰이 놓여 있고. 뭐 어떤 하얀색 철로 돼 있나? 그 새가 떨어져 있고. 바닥에 그리고 되게 깜깜한데 빨간색 조명이 딱 켜져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휴대폰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 하고 이렇게 또 보다가 그냥 들어오면서 봤는데, 옆쪽 공간에 좀 제가 느끼기에는 새장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경로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확 돼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벽면에. 그래서 '아~ 이게 뭔가 터지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설명을 보니까 폭발을 표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나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기로 들어갔는데. 일단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바닥... 완전 깜깜한데 바닥에 이렇게 글자들이 막 있고. 좀 이렇게 뭔가 빛이 점점 작아지는 그거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거기 글자가 써져 있는 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자가 이렇게 점점 안 보이니까 '어떤 거를 표현한 걸까'. 그거를 보고 나와가지고 딱 다른 연결된 방에 들어갔는데 위에 이제 약간 석고로 손가락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약간 숫자, (작품과 같이 손 모양을 만들며)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숫자를 나타내는 건가?'(하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제 어떤 조명에 의해서 앞에 세 개만 좀 빛을 받고 있고 살짝 녹은 흔적도 있고 해서 저 세 가지의 그 손에는 무언가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고 이제 다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먼저 갔는데. 여기가?

—씨

1:18:22

온실 쪽이죠.



새빛

1:18:23

네, 완전 투명으로 되어있는. 거기로 갔는데. 뭔가 이렇게 이거부터 봤는데, 뭔가 홀로그램... 비닐인가? 뭔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보고. 뭔가 어떤 공이? 이렇게 막대기에 꽂혀 있는 거를 보고. 그 위에 붓이랑 깃털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그것도 보고. 그리고 옆에 약간 종이로 돼 있는 무언가들도 보고 이제 나와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약간 위쪽에 스크린 두 개 있었는데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다 뭘 의미하는 걸까 적어봤었거든요. 시간이랑 공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는 빨간색 얼음... 그러니까 빨간색 물이 담긴 얼음을 또 옆에 스댕 그릇에 담고

여기는 또 파란색깔로 돼 있는 그거를 이렇게 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영상에서는 종이를 이렇게 구기는? 그게 공간에 대한 뭔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옆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 물 이렇게 여기다가 섞고, 여기다가 섞고, 막 스포이드로 섞고, 다 같이 섞고, 막 이런 거 보고. 나와서 여기서는 어떤 테이블을 봤는데 딱 봤을 때 밑에 조개들을 먼저 봤어요.

테이블이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바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빨간색 이런 것도 섞여 있고. 뭔가 대륙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불가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물에 조개가 걸려 있는 모습도 있고. 뭔가 여기서 딱 이 공간이 아름다우면서도 그 그물에 걸린 조개 모습이 살짝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 스크린에 물고기 투명색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이제 가시만 남은 채로 여기 스크린에서 양 옆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헤드셋 끼고 소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씨

1:21:49

그러면 그때 지하부터 가셔서 관람을 해 주셨는데, 한 얼마나 보셨을까요? 한 20분 보셨나요? (새빛: 한 20, 30분) 2,30분.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몸의 감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혹시 어떤 신체적인 감각을 느낀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이런 시간 순의 몸 감각으로 좀 더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또 이전에 다른 사례이긴 한데, 여기 전시 보게 되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뭔가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던가, 어떤 과정들을 기록하는 용지거든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뭔가 틀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떠올라지는 대로 혹시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새빛 님의 어떤 감상이나 감각에 대한 얘기를 몸에 빚대어서 한번 좀 더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새빛

1:23:28

사실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딱 지하로 이제 들어갔을 때 거울을 봤어요. 거울의 빛이 보여서 보고. 좀 머리를 이렇게 정돈하고. 그냥 이렇게 요거랑(양하X최은총 <<부르르>>의 서문) 이거랑(전시 도면) 이렇게 같이 보면서, 되게 손이 여기는 펜을 들고 있고 여기는 이걸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너무 뭔가 담고 싶은 그런 거 뭔가 풍경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손이 없어서 그랬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못 찍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보면서 그 몸이 막 어디 어디를 먼저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맨 처음 거를 가가지고 그 검은색깔 배경... 검은색깔 배경 완전 깜깜한 휴대폰 놓여져 있는 거기서 살짝 멈췄죠. 살짝 무서워가지고. ㅎㅎㅎ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새장처럼 생긴 게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거기 들어 가가지고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거기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싶었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문을 열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 전시 공간에 사람이 두 분이 계셨는데도 어두워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검은... 되게 어두워서 글자가 이렇게 좁혀지는 걸 보니까 눈이 일단 조금 피로했고. 내가 그 글자를 읽으려면 그런 걸 느꼈고. 그다음 공간에서, 손가락 있는 거기에서는 그냥 멍하니 서서 감상을 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풀어보는 그런.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씨

1:27:08

생각을 거치는 과정이 흥미로우셨던 거예요? 아니면,

새빛

1:27:12

네.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해석을 못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하는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길에서 되게 덥긴 했지만, 위에 층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 더웠지만,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과정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재미가 있었고 그 과정도. 나와가지고 들어가는데 시원해서 좋았고 일단. 보면서 맨 처음 들어간 이 공간이 사실 살짝 조금 저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심오해서 계속 봤거든요. 다리가 살짝 아팠는데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몇 번 보다가 그냥 나왔고. 그다음 공간에서는 되게 딱 보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흥미로웠다? 그다음 공간들은 다.

2) 정혜정x문아름 <<뗏목 아래 우리>>

—씨

1:29:09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뭔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억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이 같이 동원돼서 생각이 드신 건지?

새빛

1:29:24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게 되게 딱 봐도 뭔가 환경에 대한 그런 거 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그물에 걸려 있는 조개, 그리고 가시밖에 안 남은 물고기' 하니까 되게 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그 테이블이 바다 같기도... 바다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면서 저는 뭔가 우리 지구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그냥 '내가 본 거는 그런 작은 일들인데 여기 모여서 지구 전체를 좀 위협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조금씩 들었어가지고.

—씨

1:30:45

아까 처음에 동선 얘기해 주실 때 이 지점에서 아름답다는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해 주시는 말씀으로는 여러 생각들을 반성이나 아니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경각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상반된다면 상반될 수 있는 다른 생각들이 다 불러일으켜진 공간이었던 것 같네요.

새빛

1:31:26

딱 봤을 때는 되게 예뻐어요. 조개들도 있고.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었더라고요.

3) 다른 감각을 엿보기 - 곽기쁨X박예린 <<당신의 눈동자에 넣어볼 어 스며든다>> 중 <~하는 중>

—씨

1:31:48

그러면 이 전시를 볼 때 혹시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에서는 새빛 님의 어떤 다른 경험이나 과거의 기억이나 누가 떠오른다던가 그런, 전시 외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는 그런 순간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새빛

1:32:29

일단 저는 여기 공간... 사실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설명들을 읽고 나니까 이게 수어로 해가지고 '말하는 중' 이건데. 그 손가락 3개가 녹아내리는 그게 '말'이었다. 그 '손가락 3개'의 뜻이 '말'이라는 거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전에 계속 이렇게 빛이 줄어드는 그거에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그런 거랑 연관이 뭔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뭔가 '땡'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뭔가 언어에 대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뭐 제 일상이랑 뭔가 연관된 그런 거는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는 뭔가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그런 수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느낀 게, 약간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뭔가 저는 평소에 차별이라는 거를 되게 서슴지 않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수어를 보고 나니까 이게 '말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말'을 소리로 듣지만 그분들이 이제 손으로 하니까 살짝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새빛

1:35:08

이걸 뭐라고 한 번에 표현을 할 뭔가가 있을까? ... 우리는 말하는 중이라고 입으로 내뱉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이제 내가 생각한 말이랑 좀 많이 달랐다. 느낌이 하... 그냥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차별인가? 내가 생각하는 말은 진짜 여기 육성으로 나오는 말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말을 하시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다른 거다'라고 좀 인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씨

1:36:12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수어가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수어라는 것이 결국 작품을 통해서 물질로 새빛 님 앞에 나타나고. 또 그것도 작가님이 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할로겐 조명에 녹아내리게끔, 그래서 제목도 말 없이 '뭐 뭐 하는 중'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듯이 그 '말'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을 입고 그게 약간 사라지는 그런 과정도 전해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어라는 개념 너머에 진짜 수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말의 감각을 좀 약간 엿본다고 해야 되나? 느끼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었던걸까요?

새빛

1:37:12

네, 네, 되게 그니까 딱 그냥 만약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ㄱ, ㅏ, ㅋ'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잘 와닿지 않았을 법한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더 뭔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4) 찌릿 삐죽삐죽 - 다른 감각을 이해할 때 몸의 느낌

—씨

1: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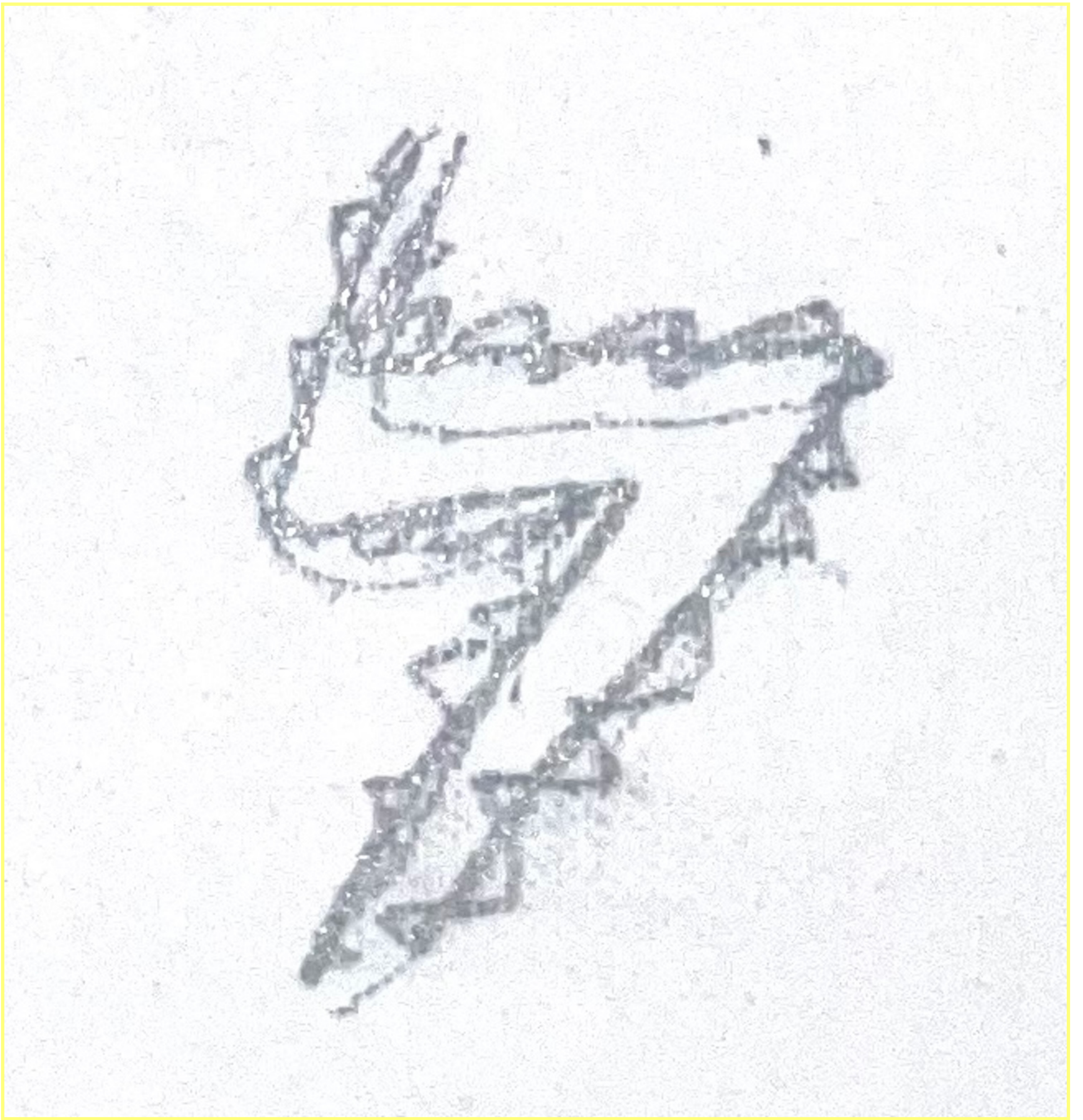
사실 저는 그런 매력 때문에 미술을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 몸이랑 새빛 님 몸은 다르잖아요. 다 누구와도 다 같지 않고 그래서 모르는 감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미술이나 음악도 그럴 테고 어떤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매체'라고 하죠. 그런 예술을 통해서 다른 몸의 감각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은데. 오, 이게 그런 새빛 님한테 그런 걸 줬더니 너무 좋네요.

그런데 그 '알게 되는 그 감각'을, '아! 내가 몰랐는데 저분들이 느끼는 걸 내가 좀 알게 된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들어서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을 저도 좀 느껴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몸 감각을 그려주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뭔가... 몸에서의 느낌 어떠셨어요?

새빛

1:4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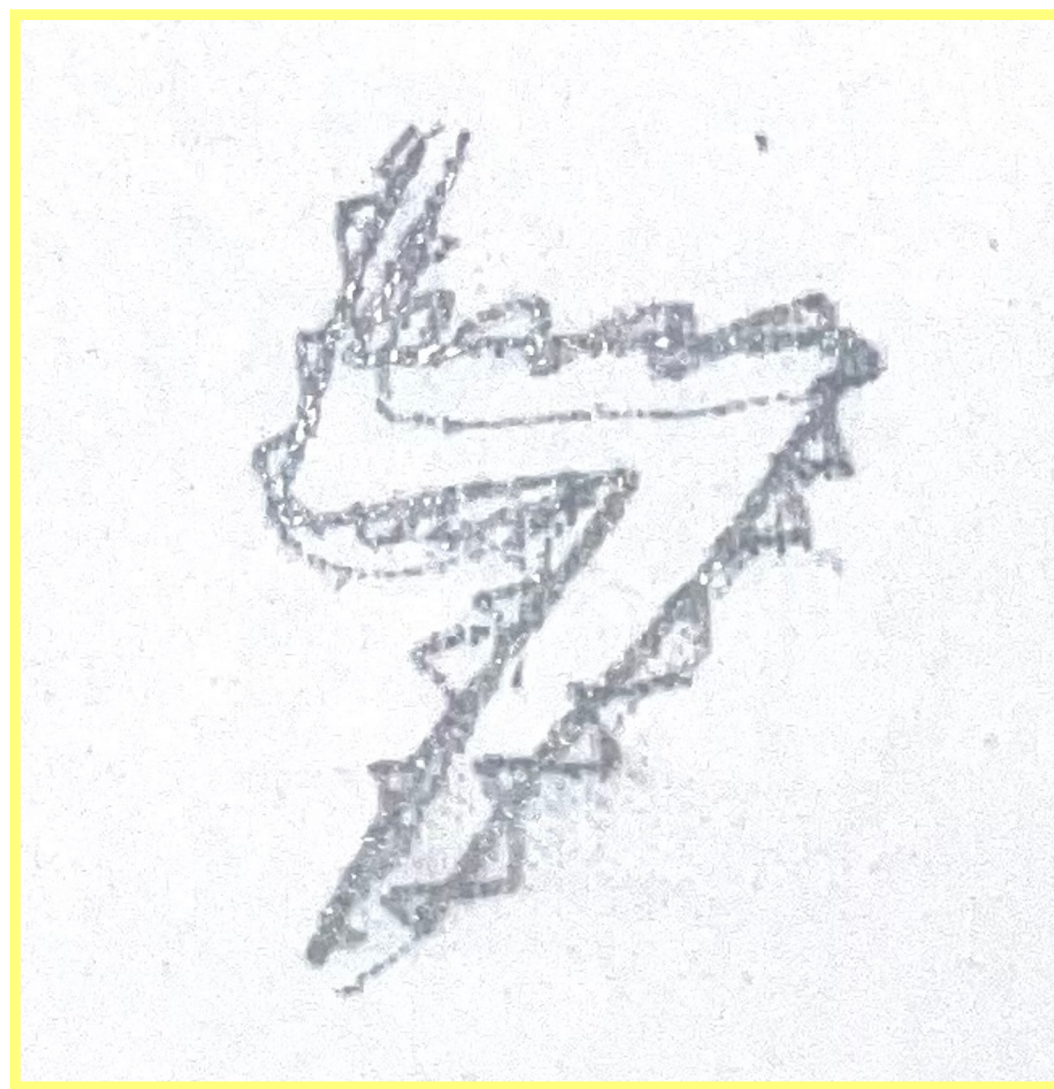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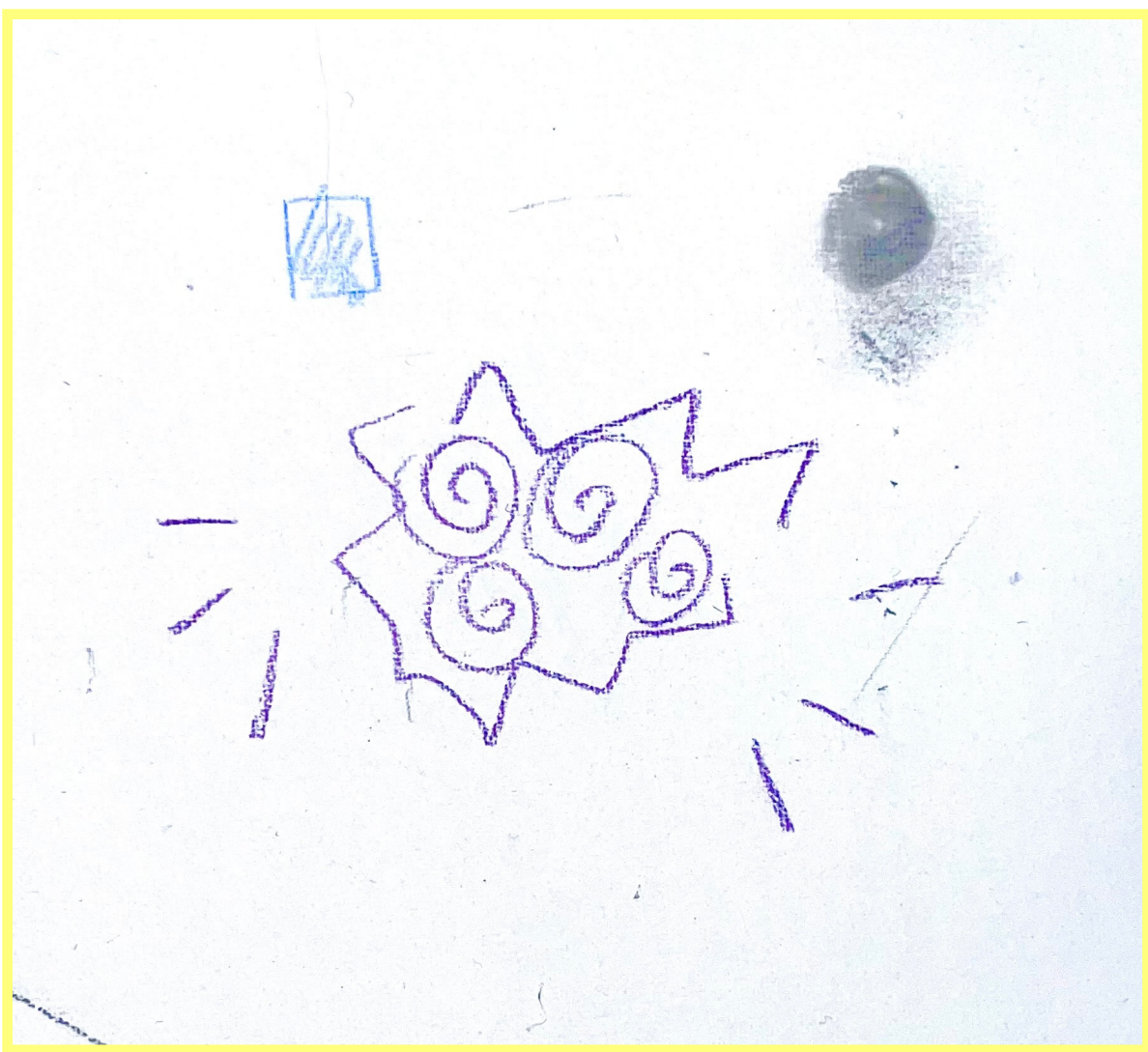
그럼 정말 간단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좀 '삐죽삐죽' 이런 느낌. 뭔가 전기 딱 약간 좀 '찌릿'한.



—씨

1:41:06

그럼 이 둘 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새빛

1:41:11

아, 이거(좌)는 머리에서 이렇게 약간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조여오는' 것을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우)는 좀 '번뜩'의 느낌이고 이거는 살짝 가슴에서 느껴지는 좀 '찌릿'이신 것 같아요. 이걸 '번뜩'이고 '찌릿'인데 좀 머리에서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좀 가슴에서 나오는?

5) 일상에서 느낀 찌릿 삐죽삐죽

—씨

1:42:04

이런 경험을 전시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종의 타자 지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각을 지각하게 되는 거? 타자 지각이나 아니면 뭐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게 내가 이 수학 문제 몰랐는데 풀 수 있게 됐어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찌릿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감각이나 이해의 확장이 자기에게 분명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게 미적 경험이 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되는 순간. 그런 게 전시장에서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마 그냥 친구랑 대화하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또 언제 어디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새빛

1:43:42

(한동안 생각에 잠긴 뒤) 되게...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언제였더라... 아무튼 그런데 1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3년 전, 3년 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교수님이랑 이제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처음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1대1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제가 곡을 써가고. 그러니까 곡을 써 가서 이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뭔가 배움을 받는 그런 거였는데 그 음악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제가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막 이러니까 다 외국인들이 설명하는 것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제가 사실은 교수님은 별로 안 친해가지고 교수님께 여쭙볼까 말까 하다가 딱 여쭙봤어요. 그런데 교수님 알려주시면서 약간 이제 마지막 쯤에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 이게 얼마나 유용한 기능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께 좀 이런 것까지 여쭙보면 내가 전공생인데 이것도 모르는가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못 물어봤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딱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나는 알려주는 사람인데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라도 다 물어보고 알려주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딱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빛

1:46:42

약간 뭔가 마음 어딘가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거기에서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을?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그냥 이게 한마디로 하자면 약간 짜릿? 이런 느낌이었어요.

6) 이해함과 이해받음의 느낌

—씨

1:47:17

그러니까요. 그 '짜릿' 되게 흥미로면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 전시를 보시고 그 수어를 밀납으로 만든 걸 보시고 느꼈던 '짜릿'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느낀 '짜릿' 같거든요. (새빛: 네.) 그런데 지금 그 교수님과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그 에피소드는 새빛님이 '이해받음으로써'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새빛: 네.) 그래서 감정의 토대가 되는 이유의 카테고리는 '이해'라는 차원에서 좀 비슷하지만 방향성이 이렇게 다른 점에서, 그렇지만 같은 걸 느낀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오. 마음의 신비로군요. ㅎㅎㅎ

7) 양하X최은총 <<부르르>>

—씨

1:48:20

그러면 이 전시를 전체로 통틀어서 인상적인 작업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지도? 재구성된 지도(정혜정, <히치하이커_테이블>, 2024)랑 이 수어 작품(곽기쁨, <~하는 중>, 2024) 이렇게 두 개가 될까요?

새빛

1:48:31

그거랑 아까 폭발이라고 했던(양하X최은총 <<부르르>>)... 사실은 수어 그 작품이랑 아까 뭔가 바다를 표현한 듯한 그 작품은 보면서 뭔가 제일 기억에 남은 그런 거였는데. 이 폭발 이거는 설명을 읽으면서 되게 기억에 남을 법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씨

1:49:17

설명은 여기 내려와서 내려서 읽으신거죠? 이 작업에 출발점이 된 그 알람 사건(2023년 5월 31일 북한 미사일 오발령) 있었잖아요. 그 때 알람 받으셨나요?

새빛

1:49:30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하여) 진동이 울렸어 가지고 그런데 화면에는 뭐가 안 뜨는 거 같던데 '누구한테 연락이 왔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씨

1:49:50

그러면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가 위급한 일이 아니라 그냥 뭐가 일어나서 왔구나 정도로...

새빛

1:50:01

(작품에서) 이렇게 뭔가 폭발이 됐으니까 그런 위급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씨: 아,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보면서 맨 처음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뭔가 새장 같은 그곳에서 폭발이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지금 그 진동이 울린 게 지금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좀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연락이 온 거구나'라고 딱 느낀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씨

1:50:40

이 전시장 안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는거군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이야기도 좋은데,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왜 뭔가 통신 오류가 아니라 그 위에 컨트롤타워의 소통 오류로 긴급 대피 명령이 한 번 있었잖아요.

새빛

1:51:02

네, 그거를 이제 와서 읽게 된 거죠.

—씨

1:51:07

그럼 그때 혹시 알람 (새빛: 아니요) 받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거 받았는데

좀 당황해서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빛

1:51:17

저는 그거를 기사로 읽게 됐어가지고.

—씨

1:51:29

여기 내려와서 이게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거기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게 왜 흥미로운 것 같으세요?

새빛

1:51:45

일단 정말 다른 것 다른 것들이 너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한데 되게 얼마 안 된 일이고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그 당사자도 아니고 주변인도 아니지만 저는 완전 기사로 접했을 때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애들한테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일인데. 진짜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그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진짜 좀 두근두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연관되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며칠 전에 대남 전단이라고 문자 왔을 때도 그 재난 문자 안에... 그때가 또 막 12시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밤에, 막 그냥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미상 물체 발견' 이것만 봤을 때 딱 그냥 '헉'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막 문자에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돼 있고 하니까. 그냥 솔직히 그 대남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있는 일인데 작년에 오발송된 재난 문자는 살면서 그런 문자를 몇 번이나 받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놀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씨

1:54:01

그런 거는 진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또 이 작업을 한 작가님도 느끼셨고. 그걸 그렇게 처음에 봤을 때 구름 같은 그런 모양으로 (표현하시고). 새빛 님도 처음엔 '구름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이 방에 와서야 뭔가 폭발하는 감각을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우리 일상을 좀 황당하게 뒤흔드는 그런 감각들과 이 전시장 안에 펼쳐져 있던 이미지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다면 새빛님은 그 간극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연결시키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울 수도 있는 이미지이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재료도 쓰이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기억에 남는다면 그 종합이 돼서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요. 그 이미지와 그 사건이.

새빛

1:55:28

계속 그 하나하나의 조형물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씨

1:57:09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오발송된 재난 문자 같은 거를 보고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당황했을 그런 불안감이 정말 이만큼(큰 손짓)인데 그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은유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은 그 차이가 저는 느껴지고. 그런데 그걸 점점 증폭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흔히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작가가 보여줬고. 그래서 그것이 좀 인상적이라면 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 지금 현재 이후에 새빛님이 계속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실 때 어쩌면 이런 비슷한 일상생활의 불안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불현듯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상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갖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그런 차원에서 뭔가 새빛님이 인상적으로 보셨던 걸까라는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새빛

1:58:51

뭔가 설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거울이 여기 있는 게 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거를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되게 마지막에 가서야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았지만... 되게 그런 조그마한 거울이나 조형물들이 저는...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 실수잖아요. 그런 게 계속된다면 '진짜 마지막에 진짜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도 있게 되겠다'라고 느껴서. 그것도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저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었다고 느꼈어요.

5. 마무리

—씨

2:00:18

이 전시에 대한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언어도단의 영역을 다시 언어화하는 일이었어서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인터뷰 전반에 대한 소감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새빛

2:01:16

일단, 되게 머릿속에서는 장황하게 어떤 것들이 그려지고, 느껴지고. 딱 어떠한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되게 있는 느낌은 드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어떤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조금이나마 전달이 더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씨

2:02:30

저도 이렇게 다른 분의 감각을 보는 게 항상 기쁜 일인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멀리서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식사도 못하시고... 감사합니다.



격주로x아마도Lab

'n개의 모닥불' 워크숍 시리즈 - 관람자 심층 인터뷰

<<제11회 아마도애뉴얼날레_목하진행중>> 관람자 '새빛'

진행자 격주로 —씨(이은재)

참여자 새빛

인터뷰 일자 2024년 6월 1일

주최 아마도예술공간

주관 아마도Lab, 격주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시각예술창작주체

©격주로, 아마도Lab

이 문서에 실린 글과 도판의 무단전재와 배포를 금합니다.

